

| 서평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 ‘여생의 약동’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리질리언스

김병인\*

### I. 왜 리질리언스인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3.0사업단은 2025년부터 <가족커뮤니티인문학을 통한 플루리질리언스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아젠다(이하, ‘리질리언스 아젠다’로 칭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리질리언스(Resilience)는 ‘취약한 기능의 복구’ 또는 ‘정상화’를 뜻하며, 플루리질리언스(Plural Resilience)는 ‘다층적 재도약’을 의미한다. 본 글에서 사용하는 ‘리질리언스’는 ‘회복력’이나 ‘재도약’으로 받아들이면 의미가 잘 전달될 것이다.

‘리질리언스 아젠다’는 복합적 사회 난제와 문명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 공생, 소통, 연대, 감응, 기억 등 다섯 영역에 걸친 ‘리질리언스’를 매개로 다종(多種) 주체의 공동미래 창출을 위한 ‘플루리질리언스’를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리질리언스 아젠다’ 연구를 통해 고립, 외로움, 세대 불평등, 차별, 지방 소멸, 디지털 소외 등 복잡하게 뒤얽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다.

‘리질리언스 아젠다’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이 전제되었다. 첫째, 개인의 취약성은 공동체적, 지역적, 구조적 차원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둘째, 고립된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은 어떤 구조적 문제 속에서 형성되는가? 셋째, 고립된 개인의 감응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표현되는가? 넷째, 개인의 삶에서 감응이 파급하는 공동체적, 지역적, 구조적 효과는 무엇인가?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마을 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7인의 생애에서 ‘리질리언스’의 발현 과정과 파급 효과의 탐색을 시도한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의 출간은 위와 같은 물음에 대한 응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광복 이후 한국전쟁, 압축적 산업화와 절차적 민주화, IMF 외 환위기로 이어지는 격변의 80년을 지내왔다. 통상적으로 국가사는 전쟁, 혁명, 경제 성장과 같은 거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국가 통계와 공식 기록이 포착하지 못한 이면에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온갖 고난을 어렵게 버텨낸 개인들의 ‘일상 세계’가 존재한다. 이 책은 그 간난(艱難)의 시간을 견뎌낸 60~70대 여성 7인의 삶을 더듬어, 우리 시대 보통 사람들의 생애사를 서술한 것이다.

이처럼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는 간과되기 쉬운 일상의 기억과 경험을 복원하여 역사의 시각을 ‘기층으로부터’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해야 한다. 7인의 여성이 겪은 삶의 질곡과 이를 뛰어넘어 ‘리질리언스’로 나아가는 실천의 과정을 촘촘히 그려낸 이번 작업은, 거대 담론의 빈틈을 채우는 미시적 기억과 기록의 힘이 얼마나 의미있는지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7인의 ‘기억(구술)’을 ‘기록’하기 위해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산하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박미선 교수의 「커뮤니티방법론연구」 수강 대학원생 14명이 힘을 보탰다. 이들은 구술자 7인과 1:2로 매칭되어 세 차례 이상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세대 간의 교감은 단순한 기록 작업을 넘어 기억을 매개로 한 관계 회복과 상호 치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번 작업은 구술생애사가 과거를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삶을 긍정하며 공동체적 회복을 촉진하는 ‘기억 리질리언스’의 실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는 공동체 속 개인의 기억과 삶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리질리언스’의 발현 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II. ‘고난’에서 ‘약동’으로

구술자 7인의 생애는 매우 파란만장(波瀾萬丈)하다. 파란만장은 ‘사람의 일생이 기복이 많고 변화가 몹시 심하다’라는 뜻으로, ‘만 장(3만m)’의 파도를 맞닥드린 상황이라는 것이다. 쓰나미의 파도가 20~30m 정도라고 하니, 파란만장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의 과거는 ‘파란만장’했으나 현재는 ‘기고만장’하다. ‘약속은 나의 재산이고, 정직은 나의 신분이다’는 이심열, ‘휘어질지언정 꺾이진 않았다’는 조화경, ‘넘어질 수 없는 나의 삶, 회복의 기록’을 남긴 김정순, ‘잊히지 않는 그날의 무게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끈 박춘자, ‘시련에서 피워낸 감사’를 외친 윤정옥, ‘동천마을 긍정과 패션의 아이콘’을 자처하는 이명미, ‘빨간 구두를 신고 비로도 한복을 입은 7살 소녀가 동천마을에 오기까지’의 삶을 기록한 성영애, 이들 7인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며 앞으로 나아갈 ‘리질리언스’의 힘을 발견해 냈다.

60~70년의 삶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지금 동천마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7인의 생애사에는 이질적인 과거와 동질적인 일상이 중첩되어 있다. 이들 7인은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리질리언스’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고, 동천마을에서 함께 ‘리질리언스’의 기회를 얻기도 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7인의 여성이면서 동시에 동천마을이라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7인의 삶의 궤적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예비 독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이들의 생애를 관철하는 키워드를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 책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로는 ‘여성’, ‘아파트’, ‘IMF와 격변기’, ‘리질리언스’를 들 수 있다.

첫째, ‘여성’은 가부장제와 빈곤을 뚫고 피어난 주체로 설명되고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인 60~70대 여성들의 구술은 가사 노동과 생계형 노동이라는 이중고를 넘어, 어떻게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정서적 독립을 꾀했는지 알려

준다.

둘째, ‘아파트’는 삶의 궤적을 투영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펼쳐진다. 7인의 구술자는 다양한 주거 변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회고했으며, 아파트에서 맺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리질리언스’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셋째, ‘IMF와 격변기’는 시련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뚫고 전진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외환위기로 무너진 가계 경제와 가족을 지켜낸 이들의 경험은, 처절한 생존 전략과 고통의 수용 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넷째, ‘리질리언스’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으로 작동한다. ‘리질리언스’는 단순히 역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회복의 단계를 넘어, 시련을 통해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힘이다. 7인의 여성들이 과거의 상처를 언어로 발화하고 서사로 구성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자기 치유’이자 ‘자기효능감’을 발견하는 ‘인문학적 리질리언스’의 구현인 것이다.

네 가지 주제어를 매개로 소개된 7인의 생애는 정확하게 두 축으로 갈린다. 하나의 축에는 가난, 아버지, 남편, 시대, IMF, 실패, 배신 등이 영겨 있다. 다른 하나의 축에는 가족, 자식, 정직, 근면, 텃밭, 노래, 그림, 자전거 등이 자리잡고 있다. 전자가 좌절과 고통과 고난과 질곡의 원인이었다면, 후자는 극복과 희망과 전진과 약동으로의 전화라 할 수 있다.

새해 벽두에 동네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딸이었다는 이유로 구박을 당하고 서러움을 겪은 그들의 시대는 ‘야만’에 다름 아니었다. 우리나라에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어 IMF에서 고작 550억 달러를 빌리면서 3000여 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니, 망국의 단계에 다름 아니었다. 이 모든 일들은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시대에 흐름에 떠밀린 개인은 어찌할 수 없는 피해자였고 희생자였다. 그런데 이들이 나라를 구했고, 가정을 살렸고, 공동체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 스스로가 해방되었고 ‘리질리언스’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전거로 대자연을 질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영혼을 치유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마음대로 먹고 자고 웃으며 사는 ‘자유’를 얻었다. 반신욕을 하며 ‘가족과 믿음, 그리고 책임’으로 버텨온 삶을 보상받았다고 여

겼다. 암울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남은 생을 가장 젊은 순간으로 삼아 행복하게 지내기를 다짐한다. 울면서 들어왔지만, 정말 예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지없이 행복하다고 한다. 웃으면서 꾸밈없이 지나치게 깊어지지 않고,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것을 되뇌인다. 미움과 원망을 놔버리고 마음 한쪽의 따뜻함으로 일상의 행복을 누린다.

얼핏 보면 7인의 ‘리질리언스’는 대단한 각성도 놀라운 변신도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으로 평화롭고 편안하기 그지없다. 동시에 환희마저 느껴진다. 과거의 고난을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다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동천마을 여성 7인의 앞날에 펼쳐질 ‘여생의 약동’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 Ⅲ. 개인과 커뮤니티, 연결의 끈

20세기 후반부터 지금에 이르는 40여 년 동안 인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요소로 ‘PC(Personal Computer)’의 등장을 꼽는 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80년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내놓은 야심작 ‘PC’가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미국 인텔사가 1993년 발표한 마이크로프로세서 ‘펜티엄(Pentium)’을 통해 컴퓨터가 대중에게 확산되면서 명실공히 ‘PC시대’가 도래하였다. ‘PC시대’는 디지털을 만나면서 더욱 확산되었고, 모바일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극점을 누리는가 싶더니, 현재는 ‘AI’를 장착해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상상 이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 모든 정보를 집약할 수 있고, 무한하게 확산시킬 수도 있다. 개인이 정보를 모으고 퍼트릴 수 있게 되자, 그들은 끊임없이 분자화되었고 독립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지금 개인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굳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혼밥’, ‘혼술’, ‘혼여’, ‘혼행’, ‘혼글’, ‘혼영’, ‘혼족’, ‘혼쇼핑’ 등의 유행어는 ‘PC시대’에 홀로 생활하는 개인의 위상을 반영한다.

개인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초개인화 현상이 두드러져서 ‘커뮤니티[공동체]’와 무관하게 생활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들’이 끊임 없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참여하고 있다. ‘카톡 단톡방’에서 타인의 행적을 살피고, 누군가의 블로그를 찾아가 ‘좋아요’를 누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통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초대형 카페를 찾아 대중들 속에 놓인 자신의 안정성과 항상성을 확인하고, 대형교회에서 주일마다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야구장을 찾아 팬들과 함께 응원가를 부르고, 공연장에서 또래들과 즐기며 살아간다. 다양한 크루활동과 독서모임, 맛집모임, 동호회에 모인 분자화된 개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얻거나 스스로 ‘잘살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초개인화된 이들이 찾는 커뮤니티는 얼핏 있다가 없어지는 ‘헛것’처럼 보인다. 예전의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치 중심의 커뮤니티와 다른 점이다. 어떤 올바름의 실천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자화된 개인의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주는 방어 기제로서의 커뮤니티를 찾는다. 나를 존중하고 환대해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 끊임없이 헤매고,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런 특성을 가진 커뮤니티가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방만하고 무력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초개인화시대’에 분자화된 개인이 누군가와 함께함으로써 존재감을 느낀다는 자체가 커뮤니티의 힘을 믿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커뮤니티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내재하고 있다.

지나해 계엄정국에서 ‘응원봉’과 ‘K-팝’의 등장은 분자화된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이들은 어떤 조직화된 커뮤니티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통해 그때그때 모이고 흩어졌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누구인지 상관없었다. 오로지 응원봉을 들고 계엄정국을 돌파하려는 이들의 욕망이 분출되는 통로일 뿐이었다. ‘키세스’로 불린, 눈발 속의 분자화된 개인들이 구성한 거대한 커뮤니티는 계엄정국을 돌파한 큰 기둥 가운데 하나

였다. 마치 하나의 ‘시대정신’처럼 작동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커뮤니티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정한 구조나 개인의 능력이 필요없는 시대에 이르렀다. 거대한 자본, 문화 권력, 다국적 기업의 횡포, 국가 폭력 앞에서 ‘피해자’에 불과했던 ‘개인들’이 이를 보상받고 회복하려는 노력과 투쟁을 일삼는 것은 이미 일상 속에서 체계화되었다. ‘회복을 위한 욕망’은 개인을 움직였으며, 이로써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작동하게 만들었다.

동천마을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가난과 좌절을 겪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고 서러움을 겪었던 7인의 주민은 동천마을이라는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리질리언스’의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독자적으로 재도약을 꿈꾼다고 하더라도, 그가 속한 커뮤니티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이 아파트 공동체가 제공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텃밭 가꾸기, 선진지 견학, 스마트폰 교육, 노래 교실 등에서 회복의 힘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천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성적 업무를 뛰어넘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해 주민들이 ‘리질리언스’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에서 아파트 관리 주체의 역할이 유독 눈에 띈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존재한 것처럼 인식되어 온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은 ‘개인’에게 ‘커뮤니티’의 힘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7인의 여성들은 기꺼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류함으로써 ‘리질리언스’의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은 이번에 발간된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인문 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융복합 인문학 연구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들의 또다른 ‘리질리언스 아젠다’ 성과를 기대해 본다.

